

이야기가 샘솟던 마을의 보물 우물 '심선'

마을에 깊은 우물을 파고 두레박을 내려 땅속 물을 길어 음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물은 당시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면서 마을 소식을 공유하는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우물이 마을에 복을 가져다준다거나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했지요.

5월호 「역사의 꽃이 피었습니다」는 고양시 대장동 토박이 편명식 씨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1973년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우물가에 모여 쌀을 씻는 장면이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덕양구 대장동 208번지 인근에 있는 이 우물의 이름은 '심선(心洗)'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올 때마다 마음을 단정히 하고, 우물의 물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우물 표면에 '심선'이란 이름과 함께 새겨진 '소화 14년'도 눈에 띄네요. 이를 통해 이 우물이 일제강점기였던 1939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의 깊이(井深) 4m, 샘의 깊이(泉深) 1.25m라는 정보도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우물터만 남아 있지만, 83년의 세월을 간직한 연륜이 느껴지는 '심선'. 당시 시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이 소중했던 이 우물처럼 「고양소식」 독자 여러분들께도 희망과 기쁨이 샘솟기를 바라봅니다.

고양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고양시가 109만 특례시로 피어나기까지는 귀중한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소식>은 특례시 고양의 소중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진 자료를 기다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지면에 소개하고 소정의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gysosik@naver.com **참여방법** 사진, 사진 설명, 이름,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1973년대 우물 '심선'(편명식님 제공)



GOYANG CITY MAGAZINE
2022 MAY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고양소식>을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표지 모델을 모집합니다!

<고양소식>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입니다.

고양시에서 가족, 친구, 이웃 등과 함께한
시민 여러분의 사연을 제보해주세요.
당첨된 분은 사연과 함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공간에서 표지 사진을 담아 드립니다.
당첨자에 한하여 소정의 상품권도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사연,
원하는 촬영 장소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 gysosik@naver.com

발행인 고양시장 편집인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에디터 홍보기획팀장 박현각, 주우관 윤정로
편집위원 김민정, 김은정, 노정민, 오문석, 윤재진,
이경현, 이상철, 이암중, 임태성, 정동일, 정현숙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이메일 gysosik@naver.com
기획·디자인 웨스트코(주)
발행일 2022년 5월 1일

- 04 포토리뷰
사진으로 보는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 06 특집 가정의 달
부모님께 전하는 감사 메시지
부모와 자녀 소통의 3채널
- 10 슬기로운 고양생활 ①
생애주기별 행정서비스
- 12 슬기로운 고양생활 ②
고양에서 함께하는 육아
- 16 지방선거 Q&A
한눈에 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
- 18 고양툰
KTX행신역, 강릉역으로 향하는 열차
- 20 피어나라 청춘아
시승격 30주년, 특례시 원년 기념식 시민 참여자
- 24 은빛바람
어린이놀이터 지도봉사 방역활동사업단
- 28 고양여성공감
고양레이디스싱어즈
- 30 특집 스승의 날
위미애 가람초등학교 교감
- 32 글로벌 교육
네덜란드, 공교육 천국
- 36 길따라 이야기따라
고양시 사찰 '흥국사'
- 40 추천IN고양
영화 '흠어진 밤'
- 42 문화공감
르네상스 3대 거장 미디어 특별전
- 44 세무톡톡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 상식
- 45 고양 게시판
시정, 유관기관, 의정 소식
- 47 문예마당
'복자에게' 를 읽고
- 48 독자 소리함
독자 후기 및 고양 사랑방